이혼 한부모 가족의 경제복지향상을 위한 경제실태 및 생활시간 기초분석에 관한 연구

계 선 자 (숙명여자대학교 가족자원경영전공 교수)
강 기 정 (천안대학교 기독교복지학과 전임강사)
박 혜 성*(숙명여자대학교 가족자원경영전공 박사과정)

통계청(2001)자료에 의하면 2000년 한해 이혼건수는 12만건(쌍)으로 이와 같은 증가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혼은 그 자체가 문제라기 보다는 이혼후에 발생하는 개인적 · 사회적 부담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는데, 특히 이혼 한부모들은 경제적 빈곤과 과다한 역할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혼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경제실태와 생활시간을 분석하여 경제복지향상을 위한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1999년 통계청 「국민생활시간조사」 데이터 1,260가구를 대상으로 빈도, 백분율, 카이검정과 이혼 한부모 10명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병행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혼 한부모 가구주는 30 · 40대가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였고 과반수 가량이 중졸 이하의 교육수준이었다. 전체의 69.7%가 취업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서비스 · 판매직, 단순노무직 등 임금수준이 낮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소위 3D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둘째, 이혼 한부모 가구의 주거상황을 살펴보면 월세 · 사글세가 30.8%, 전세가 28.6%이며, 주거면적도 전체의 73%가 20평 미만으로 주거공간이 매우 협소했다. 주거문제는 한부모 가정의 자립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주택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이혼 한부모 가주 중 69.7%가 수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으나 인적자본의 취약성과 함께 생계유지에 대한 절박함으로 인해 전문적인 직업훈련을 받지 못하고 있다. 1주일간 평균노동시간은 48.25시간이며 주당 평균노동시간이 4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16.6%에 불과하다. 또한 42.3%가 정해진 휴일없이 수시로 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혼 한부모 가구주 대부분이 일용직이나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이혼 한부모의 시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58.3%가 항상 또는 가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는 일 때문에(59.1%), 자녀양육과 집안일 때문(14.7%)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유시간이 있다하더라도 대다수 한부모들은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47.4%) 여유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섯째, 이혼 한부모 가구주의 생활시간구조를 살펴보면, 여성 가구주는 가사노동시간이 하루 평균 2시간 24분으로 남성가구주 1시간 3분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여성 한부모의 경우는 생계유지를 위한 취업활동 뿐만 아니라 식사준비, 세탁, 청소, 자녀양육 등의 이중부담을 지고 있다. 이혼 한부모 가구의 수입노동시간은 평균 6시간 8분이며, 평일과 휴일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이는 요일에 상관없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직장근무 또는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